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0)(12/9/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7 장 겸손의 보호막 아래 은혜를 감춤, 4-5 절

살전 5:6 -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시 13:1 -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 84:10 -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4. 평화로운 때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살전 5:6), 흔히 전쟁의 때에는 지나치게 낙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된다. 늘 겸손하여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심령을 잘 다스리고 규율할 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금방 위험과 죄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네 영혼이 열심으로 타오를 때에는, 그 빛이 떠났을 때에 네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라”는 말은 훌륭한 조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네게서 그 빛이 떠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네게 경고하는 의미로, 그리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잠시 그 빛을 거둬 갔지만, 그 빛은 언제나 네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욘 7 장; 시 13:1).

5. 네가 하는 일들이 언제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종종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흔히 네게 더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장차 받게 될 상급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상이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또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는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참된 겸손에 토대를 두고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늘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고서 진정으로 멸시하고(시 84:10),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보다는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과 해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본질을 아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평안할 때 그 평안에 지나치게 안주하지 않고, 형통할 때 형통함으로 마음이 풀리지거나 자만하지 않으며, 영적인 감동, 열정, 만족감 등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의 내면의 긍정적 상태에 취하여 마음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다. 평안할 때 그 평안을 감사히 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도 늘 깨어 있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평안이 깨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 요동하지 않게 될 것이며, 형통할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도 내면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영적 충만감 속에서도 육신으로 느끼는 감정과 느낌보다 더 중요하며 그 느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사람은, 낙심과 우울과 절망의 순간, 은혜의 감동이 없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광야의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은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셨다(마 17:2).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황홀해 했다. 그 때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마 17:4)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모든 신비가 사라진 순간 제자들 눈 앞에는 오직 예수 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은혜, 신비, 초월감, 감동, 행복감 등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한다. 결국 우리 앞에 남아 계신 분은 주님이시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분은 주님 밖에 없다.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며, 기쁨을 가질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영적인 감동을 느끼며 누릴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황폐해질 수도 있고 광야의 외로움 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종속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초월하시며 그 상황 위에 계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 우리 앞에 서 계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며 일이 잘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여러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심이다. 예수님은 칠십 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말하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고 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의 궁극적 관심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권능을 행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보기 원하시는 참된 성도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붙잡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2. 영육의 기갈 속에 있는 복한을 장악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교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